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

1980년 5월 광주의 마음을 찾아서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인류학과 강사*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KEYWORDS 공동체, 광주민중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항쟁의 에토스, 해방, 정신, 마음, 광주

* vomulsum@hanmail.net

1. 질문으로서 공동체

1997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해법으로 선택되고 강제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바를 대부분 수용했던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어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양산되었고,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었으며, 자본과 금융 시장은 더욱 개방되었고,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본의 선택과 집중은 더욱 강렬해졌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비단 경제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의 모습마저 바꿔놓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사라져 가고 전체 직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대되어 정규직을 압도한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비정규화되었다. 1997년 이후 한국은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했고, 그를 통해 생산된 가치들과 제도들이 녹아내리는 ‘액체 근대’로 진입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는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위기가 상수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한, 만연한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한 삶에 저항하고 적응하면서 사람들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요구했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사유화의 전면화 경향 속에서 안정성, 공정함, 공공성,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논의는 비등해졌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8; 최협 외 2001).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사고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는다. 대안적인 삶의 형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공동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의 일부(박주형, 2013), 경쟁 속의 쉼터이자 피난처(지그문트 바우만, 2009), 안전에 대한 욕구의 출구로서 공동체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공동체 논의가 반외세, 반자본적 문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1997년 위기 직후의 공동체 논의는 밑으로부터 구성된 종교적, 생태적 공동체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최협 외, 2001; 한국도시연구소, 2003). 이후 공동체 논의는 정치와 사회 전면에서 사라지고 근래에는 사회 문제의 미시적 해법,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의 피난처, 사회적 경제, 창조 경제의 토대로서 공동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광주민중항쟁과 공동체를 결부시키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다시 광주와 공동체를 재론하는 것은 마을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젝트가 흥수를 이루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필요성 때문이다.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상상되고 있는가? 공동체는 사업(business)과 프로젝트(project)를 통해서 상상되거나 구성될 수 있는가? 공동체와 해방, 자유는 무관하거나 대립적인 것인가?(마이클 테일러, 2006)

공동체의 속성인 나눔과 소통은 계획에 따라 조직될 수 있는가?

1980년 5월 광주를 공동체 논의의 변곡점이자 분수령이다. 연구자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공동체로 명명함으로써 지속적인 면대면 관계에 기초하고 그 경계가 뚜렷한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공동체론과 현재의 공동체 사업과 운동은 서로 무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부각되는 공동체 실천들에 대해 재고하고 안전과 질서의 양식, 규율의 준수로서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결부된 공동체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문화적 차원을 드러내는 1980년 5월 광주의 에토스¹⁾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과 항쟁 속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현재의 공동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이고 사회공학적인 논의와 실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항쟁과 공동체

광주민중항쟁과 공동체를 결부시킨 연구자들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한낮의 집단 발포 이후 시민들의 싸움과 무장한 시민의 활약으로 시내에서 공수부대와 계엄군이 철수한 것을 ‘해방’ 기간의 시작으로, 5월 27일 새벽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총정작전으로 항쟁이 막을 내린 것을 해방의 끝으로 상정하고, 그 해방 전후 기간의 광주와 광주 시민의 행동, 경험, 몸짓을 공동체라고 명명했다. ‘절대 공동체’(최정운, 1999), ‘항쟁 공동체’(김상봉, 2010), ‘흐름의 공동체(혹은 구성체)’(이진경·조원광, 2009; 2012) 등이 그것이다.

최정운의 절대공동체론이 기여한 바는 5·18 참여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공동체론을 구성하고(김정환, 2012) “5·18이 도리어 뭐라 이름붙일 수 없는 공동체라는 바로 그 경계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명확하게 드러낸 데”(김상봉, 2010, 10쪽) 있다. 김정환이 절대공동체를 ‘반(反)정치’의 신화로 규정하면서 “5·18을 신화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후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세속의 정치를 초월한 아름다운

1) 클리포드 기어츠는 “...(한 민족의) 에토스는 그들 생활의 색조, 성격, 성질이고 그것의 도덕적, 미적 양식이며 분위기”(1998, 157쪽)라고 기술하면서 문화의 인지적, 존재론적 측면인 세계관과 구별했다.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문화 또는 문화현상의 구조나 형태를 일컫는 에이도스(eidos)와 구별하여 사건 또는 문화의 변별적 자질 또는 정신을 가리키기 위해 에토스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 글에서 에토스는 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의미로 사용되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규정되는 하나의 사건 또는 하나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관습·전통·느낌·집합적 감정”(앨런 바너드, 2003, 270쪽)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사랑의 이야기로 승화”(2012, 106쪽)시켜 정치적 사유를 가로막는 데 기여해 왔다고 비판할지라도, 최정운이 5·18을 공동체와 결부시키고 항쟁의 에토스의 단편들을 드러내어 5·18 정신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김상봉(2010) 또한 최정운의 영향을 받아 1980년 광주항쟁을 공동체와 결부시켜 광주 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적 형성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이 원리를 철학적 반성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항쟁과 공동체의 상호성을 밝히고자 했다. 최정운의 절대공동체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이진경과 조원광(2009, 2012)의 연구로, 이들은 대중의 흐름과 공동체를 결부시켜 시민들의 참여 동기와 항쟁의 특성을 감응(affect)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마음이 구체적 행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가리킬 때 감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이성과 감성 사이에 자리한 정신(精神) 혹은 마음이다. 광주의 어떤 공동체를 오늘날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절대성도, 항쟁도, 감응도 아닌 평평하게 마름질된 공동체 정신이다. 그 정신은 서로 돕고 보살피고 나누는 것이다. 이때 5월의 공동체 정신은 실천의 원리라기보다는 계몽적인 시민의 의무, 호혜성의 도덕으로 재현된다. 의무와 덕으로 형상화되는 정신은 의무와 덕으로만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감성 사이에 자리한 정신을 느슨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마음(heart)이라는 개념²⁾에 가깝다. 항쟁 당시에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위와 감정 표출에 앞서 존재했던 것은 어떤 도덕적 의무, 호혜적 윤리와 연결된 정신이 아니라 투쟁하는 사람들의 복합적 감정으로 가시화되는 마음일 것이다. 항쟁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마음의 양태로서 표출된 부끄러움, 공포, 잔함, 의로움, 가슴 벅참 등의 감정의 원천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 행동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감응 혹은 정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항쟁 현장 속의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분석하기보다 이해 가능하거나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지점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5월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당사자와 비당사자, 광주와 다른 지역을 분리하는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라도와 광주의 1980년 5월 항쟁을 구조나 주체, 감정의 능동성이 아니라 항쟁의 문화 혹은 습속을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는 부끄러움, 용기, 의로움, 용서 등의 구체적인 감정들에 관한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재적이

2)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mind)나 하트(heart)로 번역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식이나 인지적 의미와 연관된 마인드가 아니라 마인드를 포괄하면서 인지, 정서, 의지적 행위 능력의 원천을 지시하는 포괄적 의미(파머, 2012, 38쪽; 김홍중 2014, 180쪽)로 사용한다.

고 비가시적인 5월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디딤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광주민중항쟁을 다시금 어떤 공동체로 명명하고 공동체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쟁의 에토스를 기록과 증언에 기초해 재구성하여 광주와 공동체의 간격을 다시 물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동체는 명료한 개념이나 실체로서 전제되지 않으며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다면 잠정적인 형태로 사용될 것이다. 이 글은 광주민중항쟁 기간 중에서 항쟁 발발의 원인이나 5월 26일에서 27일까지의 최후의 항전을 해명하기보다 광주와 공동체의 틈, 광주항쟁의 에토스와 연결된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공동체 논의에 대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5·18과 관련된 증언과 자료는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구술로 엮은 광주의 여성의 삶과 5·18>(광주여성희망포럼·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5월여성제추진위원회 엮음, 2010), <광주, 여성 -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 둔 5·18이야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이정우 편집, 2012)를 참고했고 자료들 중에서 주로 항쟁과 공동체의 관계, 항쟁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했다.

3. 전라도와 광주의 5월 항쟁과 마음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확대 계엄으로 인한 휴교령에 항거해 계엄군 및 공수부대와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이 싸움이 공수부대의 폭력적 진압으로 말미암아 시내까지 확산되었을 때, 대학생들의 시위와 군의 폭력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은 무차별적이고,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폭력을 목격했다. 처음에 시민들은 군인들이 왜 데모하는 사람들만 잡아가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지, 더 나아가 이 데모(시위의 속칭)가 무엇인지 서로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시원스레 대답해 줄 수는 없었다.

5·18 관련 자료와 참여자의 증언들 속에서는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과 활동가들을 제외하고 뚜렷한 항쟁 참여 동기나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료에 나타나 있는 왜 함께하고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언들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5월 21일 이전 광주항쟁의 첫 번째 국면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자가 투쟁에 참여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념적 내지 정치적 동기에 상응하는 목적과 다른 무엇이 이들을 참여하게 한 것은 아닐까 짐작한다(이진경, 2012, 119-120쪽). 젊은이

들은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수치스러워 했으며 아주머니들과 어른들은 싸우는 젊은이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했고 안타까워했다. 당시 항쟁을 목격하고 병원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60세의 여성은 ‘잔해 죽것다(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환장하것어, 잔해 죽것고. 기냥 그 새끼들이 아파갖고.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때는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더라고. 새끼들이 죽으께(죽으니까) 얼마나 잔해(이정우 편, 2012, 200-201쪽).

어떤 학생이 숨 가쁘게 막 뛰어오고, 저 뒤에서 군인 놈 둘이 쫓아와요. “엄니, 엄니, 엄니...” 그래서 “어, 어디 갔다 이려고 달려 오냐” 그러면서 내가 안았어. 군인들이 누구냐 해서 우리 아들이라 그랬제(이정우 편, 2012, 59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잔한 마음,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을 가족으로 꺼안는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분노와 공포를 넘어 “대중과 ‘함께임’을 확인하는 상황”(이진경, 2012, 123쪽)이라는 표현이다.

요컨대 공포의 감응을 넘어서는 것은 그와 상반되는 개별적인 기쁨의 긍정적 감응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면 서로 공감하는 비슷한 신체들이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증가가 공포를 넘어서는 감응을 야기하는 경우다(이진경, 2012, 124쪽).

항쟁에 대한 참여 동기를 광주의 사회적 구조나 폭력 극장을 연출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최정운, 1999)에서 더 나아가 기쁨의 긍정적 감응에서 찾는 것은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대중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단지 항쟁에 참여한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을 감정을 넘어 긍정적 감응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은 우선적으로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개별화하여 자괴감이 들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혹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부끄러움이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왜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진경의 설명은 미흡하다. 그리고 분노, 부끄러움, 기쁨이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의 형태라면 왜 광주에서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왜 광주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항쟁 참여가 가능했는가에 대한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 마음, 그 힘, 그 판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내 자식 같아서”, “이웃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목숨은 살려놓고 봐야 해서” 등등 나름대로 구술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이유들은 있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의 이유 앞에 다시 “왜”를 붙여야만 했다. 쫓기는 시위대가 왜 내 자식처럼 보였을까. 왜 이웃 사람의 안부가 그토록 걱정됐을까. 왜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남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을까. 그들은 왜 국가의 무력을 불신하고 무장한 시민군에게 지지를 보냈을까(이정우 편, 2012, 31-32쪽).

항쟁을 경험한 광주 여성들에 대한 구술 자료를 엮었던 이정우의 답은 “삶”, “그 이전에 그들이 겪어 온 삶에서 이미 예비된 것”(이정우 편, 2012, 32쪽)이다.

그러므로 5·18에 이르러 구술자들이 했던 실천들은 농사를 짓거나 행상을 꾸리거나 공장의 기계를 돌리거나 병든 가족의 수발을 들거나 애들 밥상을 차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한 마을에서 살아남고자 한 가장 원초적인 몸짓이었다(이정우 편, 2012, 32).

‘이미 예비된 것’, ‘이웃과 더불어 한 마을살이’라는 답은 최정운이 절대공동체 이전에 광주에 존재한 ‘전통적’ 공동체라고 불렀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최정운은 절대공동체가 고독한 개인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의 그 물망과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으로부터 가능”(최정운, 1999, 200쪽)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정운은 이 ‘전통적’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죽음을 무릅쓴 행동을 하게 만든 공동체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성과 감정 사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시 ‘광주’ ‘시민’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로 옮겨져야 한다.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의 ‘항쟁 일지’(20-122쪽)를 보면 광주가 항쟁하는 동안 전라남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응하고 항쟁했던 상황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항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광주항쟁이자 ‘전라남도민의 항쟁’³⁾이라고도 부른다.

3) 1980년 5월 25일 협상을 위해 계엄사를 찾아갔다 돌아온 김성용 신부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앞으로 우리는, 아니 도민은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한다. 어찌 사람처럼 두 발로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짐승이다. 공수부대는

수습위원들이 전라남도지사, 부지사와 협상하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도민장’으로 치러줄 것을 요구했고, 시민군이 시청이 아니라 도청을 사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5월 21일 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항쟁이 확산을 막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광주를 봉쇄했지만 도청 앞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도민과 시민의 정체성은 장소적으로 무화(無化)된 상태였다. 그리고 광주 사람들은 봉쇄된 상황에서도 광주의 이웃, 도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광주가 해방 직후 계엄군에 의해 봉쇄되기 이전에 광주 시민이 전라남도민과 구별되는 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광주 시민이지만 전라남도민이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군 대부분의 출생지나 고향은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였다. 당시 행정 구역상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가 나눌 수 있지만 시민과 도민은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5월 18일에서 21일까지 항쟁의 절대적 경험과 해방 이후 봉쇄로 인해 광주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절대공동체든, 흐름의 공동체든, 항쟁의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가 그 이전에 있었다면 그 공동체의 범위는 지리적 경계로 구별되는 광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경계의 내부에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공식적인 성원권의 획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갖고 있지만 창설의 과정에서는 그 경계선은 불분명하며 공통적인 것의 나눔⁴⁾이 공동체를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수부대가 생면부지의 타인인 ‘내 새끼’를 구하고자 하는 할머니의 가슴계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버린 것은 당사자들에게 인권이 아니라 인륜(人倫)이었고, 그렇게 군인들은 옛이야기처럼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⁵⁾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그런

우리 모두를 짐승처럼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찌르고 쓰았다. 공부부대의 만행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폭도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였으니 이 사태가 수습된다 해도 우리는 모두 폭도가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도민 모두가 폭도요, 새로 태어난 자식도 폭도의 후손이 될 것이다. 외지에서 누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으면 전남이 고향인 사람들은 무조건 폭도로 몰릴 것은 사실이 아닌가?”(〈5·18 광주민중항쟁자료집〉, 106쪽). 또한 일부 항쟁 참여자들은 항쟁의 주체를 “광주·전남 전체 시·도민”(〈5·18 광주민중항쟁자료집〉, 174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장 퓌 낭시는 공동체를 성찰하면서 일반을 전체적으로 갈라 구별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분유(partage, 영어로는 partaking, sharing으로 번역됨)를 공동체 성립의 중요한 계기로 파악한다. 낭시는 단순적 존재는 분유를 통해 공동체로 이행한다고 지적한다(장 퓌 낭시, 2010, 66, 85쪽). 프랑스어 ‘partage’는 자기 몫을 갖는 것, 나누기, 공유를 뜻하는데 분유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어의 ‘나눔’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듯하다. 이 글에서 나눔이라는 표현은 이 분유라는 역어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

5) 당시 항쟁에 참여해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 씨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네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잔인 무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 무서운 호랑이로 정말로 돌변할 수 있는가 싶고...”(다큐멘터리 〈기억을 기억하라 5·18민중항쟁 그 10일의 기록〉(5·18기념재단) 중에서)라고 공수부대의 잔혹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짐승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마을의 법, 인륜도덕⁶⁾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다. 옛 마을살이에 대한 기억이 좋든 싫든 당시 항쟁에 참여한 대중들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도 충동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혔던 것도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이 아니라 인륜도덕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됴됨이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마음은 호혜성의 의무, 공동체의 윤리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복합적이고 집합적인 마음의 나눔이 공동체가 도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집합적인 마음은 개별의 인격 속에도 존재하지만 서로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공동체를 드러내는 이 나눔은 마치 의례 때 제상에 올렸던 하나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과 유사하다.⁷⁾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시위 참여자를 감싸려고 했던 용기 있는 광주 사람들의 행동에는 이러한 이성과 감정 사이의 마음의 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나눔과 표출이 있었기에 광주를 공동체로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4. 공동체의 몸: ‘피 값’과 희생

1980년 5월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응원, 격려, 환호, 박수에 광주항쟁의 시위대와 시민군은 가슴이 벅차고, 목이 메고, 뿌듯해져서 불안과 공포를 물리쳤다. 거기에 공동체가 있어서, 공동체 정신이 미리 자리하고 있어서 마을 곳곳의 아주머니들, 시장의 어머니들이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낯선 이들이 만들어 내고 대면한 것은 공통적인 어떤 것(whatever the common)⁸⁾이었고, 여

6) 안성례 씨(당시 광주기독병원 간호감독)는 당시 현혈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기에 노인이고 병약한 사람들은 좀 안 되겠어서 들어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가 피라도 빼서 그 부상자들을 치료해 줘야지 광주 시민이고 인륜도덕에 맞는 행위지...”(다큐멘터리 <기억을 기억하라-5·18민중항쟁 그 10일의 기록> (5·18기념재단) 중에서)라고 기억하고 있다.

7) 인류학에서 빈번하게 고찰하는 의례는 에토스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참여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기능을 한다. 이때 의례의 음식은 공동체의 몸을 상징하고, 공동체의 일부이면서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영은 광주항쟁의 마지막 국면인 최후항전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고찰하면서 당시 ‘남은 자들’의 형상을 ‘만물’이라는 은유로 제시하고 있다(2012, 77-79쪽). 이때 만물로서 남은 자들은 광주 시민의 일부이지만 시민 전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조르조 아감벤은 만물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예(example)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별자와 보편자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범례를 살펴보고 있다(2014, 19-22쪽).

8) ‘whatever’는 조르조 아감벤이 보편자와 개별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시키는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개념으로 임의의 특이성을 언급하면서 사용한 말의 영어 번역이다(The Coming Community, 1993, 1-2쪽). 아감벤은 어

기에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상황이 주어진 대로 했거든요,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맞춰서). 독(돌)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면 독을 던지고, 악을 써야 될 상황이면 악을 쓰고, 도망가야 할 상황이면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저들은 쫓아야 한다, 목적은 하나 있어... (다큐멘터리 <기억을 기억하라-5·18민중항쟁 그 10일의 기록> (5·18기념재단)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증언은 항쟁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해방 공간에서 광주 시민들의 이러한 자발성은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광주는 하나의 사태로서 군부와 언론에 의해 소수의 주도 세력, 불순분자와 간첩들이 선동한 폭동이 되어야 했다. 군부는 사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항쟁을 광주에 고립시키기 위해 간첩과 내란의 선동자가 필요했다. 군부 엘리트들의 시각에서는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건 광주 시민의 항쟁 참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엘리트와 군인에게 익숙한 이해 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지도를 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시를 받았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습위원회와 시민군이 어떻게 조직되었겠는가? 또한 그렇게 짧은 시기에 어떻게 질서와 평온을 되찾고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항쟁에 관한 모든 사실 자료와 증언은 이런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항쟁의 주체와 비주체, 지도자와 대중으로 나뉘어져야 했다. 하지만 사태를 주도한 주체가 있고 합리적 원인이 있어야 서사적인 항쟁의 진실이 드러나고 이해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황에 맞춰 항쟁 기간 각자 마음속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들을 하면서 서로 건넨 주먹밥이, 치료를 위해 부상자들에게 나누어 준 피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한 것은 아닐까. 그 피와 밥이 공동체의 몸은 아닐까?

애국가를 부를 때는 가슴이 팍 벅차오른다 할까 뭐랍니까. 목에게 막 뭐가 맺히잖아요. 눈물도 날라 하고. 그랬어요, 진짜. 눈물도 날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잖아요 전부. 똑같이 노래 애국가 부르고. 그러니까 벅차드라고요, 벅차.

편 특이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whatever란 표현을 ‘어떤’이란 말로 옮겨서 어떤 상태, 즉 마음의 작용이 공동체로 드러나기 이전의 양태를 지칭하고자 한다.

...

(애국가를 부르며) 정말 울고 그러죠. 평상시 부를 때 느낌과 다르죠. 의미가 다시 생각이 되고. 분수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시민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 (다큐멘터리 <기억을 기억하라> 5·18민중항쟁 그 10일의 기록) (5·18기념재단) 중에서)

항쟁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 됨의 강력한 경험, 나눔의 강렬함은 인생 최초의 일이었다. 이러한 감정과 경험의 고유함은 광주항쟁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를 뚜렷하게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경험한 이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시위대에 합류하고 시민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공동체에 생동감을 부여한 것이다. 고아, 양아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나섰다. 해방 공간에서 기존의 질서와 권위, 권력이 녹아내린다. 여기에 대해 이진경(2012)은 “이런 점에서 18일 이후 형성된 저 흐름의 공동체는 지위나 이름에 따라 활동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름을 지우고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132쪽)고 설명하고 있다. 해방 공간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얻고, 공동체 방어를 통해 스스로가 전혀 다른 사람,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들 중 일부가 26일에서 27일 최후항전에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

희생자(犧牲者)가 무엇을 위하여 바쳐진 생명이라면 광주의 희생자는 국가, 민족, 역사에 바쳐진 목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일부분만 진실이다. 1980년 5월 항쟁 항거한 광주 시민이 국가와 언론에 의해 폭도라고 호도되고, 국가권력과 맞서 싸운 이들이 간첩이라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당시 공식적으로 ‘광주사태’라고 명명된 사건의 사망자, 부상자는 희생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그러나 당시 광주 내부에서는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무차별적 폭력과 폭력에 항거한 항쟁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를 희생자라고 이야기했다. 이때 희생은 광주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항쟁 참여자들이 붙인 헌사(獻辭)였다. 폭동과 사태의 피해자는 항쟁 종결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정된 5·18특별법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광주의 희생자는 처음에는 내적으로 공동체에 바쳐진 목숨이었지만 광주의 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고 합법화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바쳐진 생명이 되었다. 사건과 사태의 피해자가 이렇게 공식적·합법적으로 희생자가 되는 과정은 광주 항쟁의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4·3사건의 피해자도 합법화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위령제는 추모식이 되었다. 죽은 자들은 국가의 공식의례에 씻겨 원혼이 되지 않고 국가를 수호하는 영령(英靈)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광주 희생자가 과연 무엇을 위해 바쳐진 것일까? 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초등학교생, 여고생, 노인들과 항쟁 과정에서 광주를 지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총을 들고 싸우다 죽은 이들이 똑같이 무엇을 위해 바쳐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제단에 바쳐졌다고 보다는 반대로 무고한 죽음이 있고, 의로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항쟁 이후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상정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순결하거나 의로운 죽음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우리 혹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명되어야 하고 이름이 붙여져야 한다. 그렇기에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에서는 광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희생자라고 이름 붙였다.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자는 민족이나 역사를 위해 바쳐진 것이 아니다. 최후 항전에서 시민군들은 광주와 공동체와 이미 달라져 버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 혹은 목숨을 걸었다. 최후의 항전에서 시민군들은 공동체를 위해 흘린 피 값을 받기 위해 몸과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1980년도에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대학생이나 교수나 인권단체의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 중 극히 일부를 빼고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못 배운 사람들, 고아, 양아치 등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몸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305쪽).

항쟁 기간 광주에서, 사회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전면에 등장했고,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지식인들과 명망가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공동체에 내어줄 것은 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봉쇄된 광주에서 계엄군의 진압이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나돌 무렵 도청의 시민수습위와 학생수습위에서는 무기를 회수해서 반납해서 희생을 줄이거나 막자는 의견과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져야 무기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다수는 전자의 의견으로 기울었다. 후자의 의견이 강렬하게 표출될 때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피 값', '피의 대가'였다. 이 '피의 값'은 무엇일까? 금전적인 보상 아니면 계엄군에 대한 수습위의 요구사항, 안전 보장과 보복 금지? 이 값의 최대치는 복수이고 최저치는 안전에 대한 보장

이었다. 물론 이 또한 계엄군의 총정작전으로 도청이 함락되면서 어떤 값도 치러지지 못한 듯 했다. 피 값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무기 반납은 투항이고 무조건 항복과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피 값을 받지 못하면 폭도와 간첩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怨)과 한(恨)을 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무기 반납은 살아 있는 자가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도청이 함락된 이후 고문과 폭력의 수사 과정에서 ‘수습’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리되었다. 군부의 입장에 따르면 전자야말로 사태의 주동자들이어야 했다. 해방 이후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 ning마주이, 양아치, 고아들이었다. 이들이 항쟁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광주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즈그(자기) 새끼들은 전부 끄집어내 가고, ning마주이가 다 죽었네 어쩔네 하는데, 사회에서 한번도 알아준 적 없던 이름 없는 자들의 희생 위에 우리 광주의 역사가 꽃을 피운 거제(이정우 편, 2012, 117쪽).

또한 도청 경비팀으로 배속되어 일했던 한 사람은 “...그러나 고아들과 양아치 등의 사람들이 절대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맞섰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303쪽)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이미 총을 들었고, 시민군이 된 이상 모두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순히 총을 들었기에 붙잡히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최초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총을 버린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과 경험과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이미 달라져 버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총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몸을 바쳐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자신과 공동체, 아니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버린 자신이었다.

5. 공동체와 해방

최정운(1999)은 총으로 무장한 시민, 시민군의 등장에서 절대공동체의 분열을 보았지만 (205-217쪽) 무장을 한 상황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납득하고 있었고, 총은 위협적인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시민군과 총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열렬히 환호하고 몰심양면으로 도왔다. 애초에 규정 가능한 통일된 형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군부와 언론의 태도와 공작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격려와 환호 속의 시민군은 전라남도과 광주와 일부였고 시민과 시민군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27일 도청에서 붙들려 상무대 영창에서의 고문과 심문 과정에서 그들은 군부에 의해 인격적 성분이 분석되고 폭동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아니 이미 항쟁 기간 동안 군부는 온갖 선전과 조작극(대표적으로 5월 25일 아침 도청의 독침 사건)을 통해 간첩과 폭도와 선량한 시민을 분리하려 했으며, 총을 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도청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자 했다. 그들은 27일 도청에서 최후까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붙들린 사람들의 등에 ‘극렬분자, 총기휴대’라고 써서 분류하고 수습했다. 합동수사본부의 폭압적인 수사와 심문과 고문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지도부와 비지도부, 수습위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첩과 내란음모자와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분석과 분류의 최종 작업은 결국 특별법 제정과 5·18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국가 유공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류되면서 그 끝을 맺었다. 5·18의 합법화와 공식화 이후 광주 시민과 특권적인 5월 단체들, 그리고 5월 단체들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은 규정하기 힘들고 이름붙이기 힘든 광주 공동체에 대한 분류 작업의 효과로 이미 예정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분류의 효과는 광주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광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격 요건을 만들어낸다. 자격 없는 이들은 여전히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제도, 기관, 운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5·18과 광주 공동체를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분류 효과가 만들어 내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공통적인 것을 다시 드러내고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의무와 도덕으로 환원된 추상적인 공동체정신, 대동정신을 강조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다시 사건화하여 공동체의 마음과 몸을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5월 광주의 에토스, 즉 마음과 몸이 연결된 나눔, 일체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눔과 열림의 광주공동체를 다시 구현하거나 소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항쟁 당시 광주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동체의식과 정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 시민들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그들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자신의 해방, 광주의 해방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광주의 경험에서 공동체는 목적과 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 노출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항쟁을 통해 돌이킬 수 없이⁹⁾, 불가피하게 공동체가 되어

버린(being community) 것이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고 전체 혹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광주가 분리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시위 현장과 도청 앞 쫓겨대회에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게 낯설지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한다. 분명히 타인이지만 남이 아닌 느낌, 그것이 함께 한다는 것의 마음일 것이다. 조르조 아감벤의 지적처럼 어쩌면 공동체는 불가피함을 속성으로 갖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계승되고 되살리고 확산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의무와 덕으로서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공동체를 노출시킨 5월의 마음, 몸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끝나고, 침묵을 강요당한 광주 사람들에게 항쟁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리스 블랑쇼가 말한 공동체를 생각해보니 평생 잊히지 않는 광경이 기억납니다. 80년 5·18이 있고나서 그 이듬해, 5월의 그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무척 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금남로 버스 정류장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날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지만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정말 낯설고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두들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무 일 없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한 세미나¹⁰⁾에서 언급된 이 이미지는 모리스 블랑쇼(2005)가 말한 공동체의 모습¹¹⁾과 닮아 있다.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낸 금남로의 공통의 침묵의 자리, 그 자리에 광주의 몸, 마음, 공동체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광주의 항쟁 경험을 돌이켜보면 어떤 공동체는 국가나 사회의 요청이나 개인들의 필

9)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이기도 하다. 조르조 아감벤은 목적을 완수한 사물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논의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표현을 도입하는데 이를 “사물들이 구제할 길 없이 자신의 이렇게 존재함에 맡겨져 있다”(2014, 62쪽)라고 설명한다.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공동체 연구 포럼이 주관하는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일련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인용문은 2012년 당시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81년 5월을 회고하며 발언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11) 블랑쇼는 민중의 현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던 군중이 진압대에 의해 죽었던 파리의 샤론 지하철역 사건 이후 침묵의 장례 행렬을 사례로 들고 있다. “그 무리들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도 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무리들 전체는 헤아리거나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35쪽) 여기에서 블랑쇼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민중의 현전에 의해서 드러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요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사건과도 같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임, 나눔을 통해 축복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과 목적만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으며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광주는 항거하며 공동체를 만들 계획도 목적도 없었다. 밤과 낮을 잇고 싸워서 시내에서,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축출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해방구였다. 해방된 공간은 자유의 공간이었다. 싸움과 나눔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해방이었다면 그 해방의 물적, 정신적 공간을 어떤 공동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공동체는 우연하게 도래하는 것, 다가오는 것일 수 있지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공동체는 해방의 공간에서 공통성에 대한 상호 확신, 나누어진 마음을 통해 그 얼굴과 몸짓을 드러낸다. 그곳에서 기존 질서와 사회에서 이름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은 배제되지 않았다. 해방 광주라는 공간은 내가 타자에게로, 타자가 내게로 열리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공동체 논의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동기가 되는 자아가 타자에게 열리는 행위로서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5월의 마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작업, 즉 5월의 정신과 감정에 대한 성찰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들이 요청된다.

현재도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접근하기 용이한 사람들은 마을의 명망가이거나 유지이거나 배운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자격 없는 이들, 기존의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을 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의 경험이 현재의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공동체란 기존의 질서와 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의 잠재성을 드러내고 서로의 역량이 공통적인 것이 되는 해방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해마다 5·18민주화운동기념 행사가 열리는 광주의 구 전라남도청 앞 도로와 금남로는 교통이 통제되어 혹은 고립되어 하나의 거리, 광장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광주 사람들은 자동차의 교통에서 벗어나 어떤 걸음도 가능한 그곳에는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안전과 질서가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면 어떤 매력과 생동감, 자율성이 있을까? 현재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을 향한 해방 광주의 메시지는 안전을 위한 규약과 호혜적 윤리를 부과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포함과 배제의 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사적인 것, 사적 인간의 연결망을 넘는 하나의 문턱, 해방과 자유의 공간을 열라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 광주여성희망포럼·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5월여성제추진위원회(편) (2010). <구슬로 엮은 광주의 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이정우(편) (2012). <광주, 여성-그녀들의 가슴에 묻어 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 김상봉 (2010).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10권 3호, 5-46.
- 김정한 (2012). 절대 공동체, 반反 정치의 신화. <사회과학연구>, 20집 2호, 104-235.
- 김홍중 (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집 4호, 179-213.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편)(1998).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 문화과학사.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4-43.
- 이진경 (2012). <대중과 흐름-대중과 계급의 정치사회학>. 그린비.
-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 정문영 (2012). ‘부끄러움’과 ‘남은 자들’: 최후항전을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2호, 41-87.
- 조희연·정호기(편) (2009).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도서출판 한울.
- 최정운 (1999). <5월의 사회과학>. 풀빛.
- 최정운 (2012). <5월의 사회과학>. 5월의봄.
- 최 협 외 (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선인출판사.
- 한국도시연구소 (2003). <도시공동체론>. 한울출판사.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5·18기념재단(기획), 다큐코리아(제작). <기억을 기억하라-5·18민중항쟁 그 10일의 기록>[다큐멘터리], 서울: (주)미디어갤러리.
- Agamben, J.(1993). *La comunità che viene*. (M. Hardt,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이경진 (역) (2014).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Barnard, A. (2000). *History and theory in anthrop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우영(역) (2003).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Wiley.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강.
- Blanchot, M. (2001). *La Communauté affrontée*. (J.-L. Nancy, Trans.). Galilée. 박준상(역) (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문옥표(역) (1998).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 Nancy, Jean-Luc. (1986). *La communauté désœuvrée*. C. Bourgeoi. 박준상(역) (2010).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 Palmer, J. P.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Wiley. 김찬호(역)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글항아리.
- Taylor, M. (1982). *Community, anarchy &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송재우(역) (2006). <공동체, 아나키, 자유>. 이학사.

투고일자: 2015. 03. 31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6.

The Ethos of Uprising and the Community

Searching for the Heart of May 18th in Gwangju

Kyungseop Park

Research Professor,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and so-called 'community businesses' are recently regarded as one of the popular issues for the local people and social activists. The project seems to be a miracle resolution for various social matters such as the deteriorating welfare, health care, security system and the worsening income problem, etc. But these promising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which encourage to build communities are not only constructing 'good governance' for the soun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but also allowing government technologies to manage and regulate civil society and citizens. This irony of building community is not yet thoroughly considered.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sk 'Is building community good for all of people?'; 'How does community guarantee the freedom of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reflection for community in South Korean Society has related to The May 18-community in Gwangju. The May 18-community is a keystone for understanding the ethos and pathos of community. This study tries to unravel the relation between the May Uprising and the idea of community throughout affects and hearts of participants. The lived experience and testimony of the people of Gwangju in May, 1980, reveals that community should not be in an order and an notion of security. Examining hearts of members of 'whatever community' in the May Uprising is essential to imagine a new form of community which incorporates liberation and freedom as its base.

KEYWORDS The May 18, Ethos, Gwangju, spirit, heart, community, uprising, freedom, liberation